

[98 JCC (예수공동체축제: Jesus Community Celebration)]

특별새벽기도 /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7)

성령님을 약속함

[본문 요한복음 14:16-21]

하용조 목사/ 페이지수: 6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는 지난 토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치’는 기도에 능력을 가져옵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일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소연을 하고 있을 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오래하기보다는 짧은 시간일지라도 믿음없이 중언부언하고 횡성수설하는 기도로 밤을 새는 것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지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 9:23)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전제는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믿음없는 기도는 횡설수설입니다. 중언부언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산을 옮길만한 기적을 주십니다.

기도의 비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

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기도를 할 때는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해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부탁을 할 때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믿고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오늘 말씀을 이것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오늘의 주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쉬운 이야기부터 하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옆 집에 공부를 매우 잘하는 모범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집 아들은 망나니입니다. 그런 망나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고쳐서 자기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려하지 않겠습니까? 좀 못났어도 자기 자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못났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간구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어느날 그 망나니 같던 아들이 머리를 깎고, 웃도 깨끗이 입고 와서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너무 좋아서 기절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크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만 뻥긋해도 하나님은 함박 웃음을 지으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의 별명으로써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서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능력을 잃었을 때 능력을 주실 것이며, 아이디어가 고갈되었을 때 성령님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곁을 떠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사시는 성령님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이 성령 가운데 거하면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마치 달나라에 우주선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밑에서 아무리 정확하게 쏜다 할지라도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의도한 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이 달나라에 접근하게 되면 밑에서 수정을 합니다. 궤도를 수정해서 정확한 지점에 도착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방향만 맞으면 일단 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잘못된 기도일지 모른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를 계속 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보고 압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눈을 떠서 이 분을 바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기도하는 우리들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알고, 보고,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잘못 생각해도 고쳐주실 것이고, 죄를 짓게 되면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있는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18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배신한 일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불가능한 것들일수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안심하고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전도가 잘 안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됩니다. 변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것을 구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요, 우리를 돕는 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울 것이며, 우리 안에서 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최대의 상처는 거절감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는 거절의 상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여준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여 다시 너희 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

과 대화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성령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도 사랑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보호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대신 하나님께 알려드립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그분께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하옵시고, 깨끗하게 살게 하옵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두려워 하는 마음이 떠날지어다. 의심하는 마음도 떠날지어다. 자신감을 잃어버린 마음들이 떠날지어다.

주여, 우리의 마음 속에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름부어 주옵소서.

오늘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이번주에 맞게 되는 연말과 새해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금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응답받게 하옵소서.

마지막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이 한주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새벽기도회에 오는 사람마다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방언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며, 병을 고치게 하시고, 모든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다 받게 하옵소서.

주여, 부부관계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부모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복되게 하옵소서. 저주가 물러가게 하옵시고, 고통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이 우리성도들 머리머리에 있게 하옵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다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새해는 출발부터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출발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출처 - 온 누 리 신 문** (<http://news.onnuri.or.kr>)